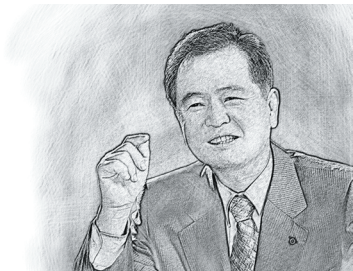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 시인 해은공(海隱公)의 삶



권오신
칼럼니스트, 저운공파회장

해은공(海隱公, 휘諱 영도寧肅 34世) 시인(詩人)은 한문(漢文) 시대가 끝나고 한글 시대가 꽃이 피는 변환기를 살았다. 한시(漢詩)가 멀어져가는 시대에 살았지만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한시(漢詩)를 놓지 못했다. 한시(漢詩)의 소재가 시인을 밤낮없이 찾아오는 시작(詩作)의 황금기를 살았으나 정작 시인은 밤새 지은 한시(漢詩)를 내놓을 곳이 없었던 시대를 관동했으니 삶 자체가 얼마나 팍팍 했을까 짐작이 간다.

시인은 전국한시대회(全國漢詩大會)에 출품한 시작(詩作)마다 장원이나 차하 특선 가작을 독차지하고 시인으로 필명(筆名)을 남겼을 뿐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도 사정은 비슷했었다고 한다.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어느 전국한시백일장에서 1등 상인 장원을 받았으나 벼루와 붓 몇 자루, 종이 10권을 받은 것이 모두였으나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이 열리는 곳이 천리 길이 되어도 참석하였다. 신학문에 밀린 한문 세대의 처절한 아픔을 지닌 마지막 선비이자 시인이셨다.

해은공(海隱公, 휘諱 영도寧肅 34世)이 조선 후기, 100년쯤 앞당겨 태어났더라면 시경(詩聖)에다 진사(進士)나 대과(大科)급제의 영광을 안고 비범한 사대부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

해은공은 먹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구하지 않는 대신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상을 한시(漢詩)로 보듬고 한의학(韓醫學)으로 백성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는 제세안민(濟世安民)의 삶을 사시면서 주옥같은 한시(漢詩) 200여 편을 남겨 세상의 빛이 됐다.

해은공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시작(詩作) 활동이 왕성했던 반면 정작 한시(漢詩)를 내놓을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은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들었던 1960년대 이후에도 1년에 10회를 넘지 않아 책상에 미발표 시(詩)가 쌓였다고 해은공의 둘째 아들(권오길權五吉, 안동권씨 경주종친회부회장, 74)이 증언했다.

해은공이 지은 “해은시집海隱詩集”과 100여 권의 문집, 한의서가 공의 둘째 아들(권오길權五吉 74, 경주시 동부동) 서재에서 지난 1월에 발견, 200여 편의 한시가 실린 해은시집(海隱詩集)을 먼저 국역, 올가을에 출간하기로 했다.

1960년 통 흥영제승당(統營制勝堂)에서 열린 한산대첩 기념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에서 특선(特選, 시제詩題 한산대첩閑山大捷) 한시(漢詩) 모처럼 출품한 시작(詩作)이었다.

南國閑山夜月明 남국한산야월명 壯靈遺像照孤城 장영유상조고성 影光古海龜船跡 영광고해구선적 愁曲殘樓玉笛聲 수곡잔루옥적성 歸雁高飛呼士魂 귀안고비호사혼 伏龍長臥吐營名 북룡장와토영명 襍秋暗憶忠翁史 마주암억충옹사 功績傳垂百世情 공적전수백세정	남해 한산도의 밤 달 밝으니 장엄한 유상이 외로운 성을 비추다. 옛 바다 그림자는 거북선의 자취이고 수루의 슬픈 곡은 옥저의 소리구나. 기러기 높이 날며 님을 부르 듯 오드린 용이 진영 이름 되었네 깊은 가을에 충무공의 사적과 공적은 먼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일세.
--	--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거병, 경북 동해안 의병사를 대표하는 산남의진(山南義陣, 경북 영천과 죽장, 포항 경주에서 주로 활약) 사적비 준공기념 한시백일장(1979)에 출품, 특선작이 된 이 시처럼 해은공(海隱公)의 한시는 충의 정신을 품은 사적이 주요 소재가 됐다.

· 영천 산남의진(山南義陣)에서 擧義山南乙巳秋 거의산남을사추 貫天忠共永江流 관천충공영강류 而今疆土如平定 이금강도여평정 萬古芳名一石收 만고방명일석수	· 영천 산남의진(山南義陣)에서 을사년(1905) 가을에 산남 의병을 일으키니 하늘을 찌르는 충의 강물과 함께 영원하리. 이제는 나라가 평정된 것 같은데 만고의 방명은 이 비석이 전하는구려.
· 과영월장흥회교過寧越莊陵懷古 高門紅箭寂寥頭 고문홍전적료두 永永君王臥此邸 영영군왕와차구 越地村間傳惜史 월지촌간전석사 江雲日盡愁孤愁 강운일하진고수 人民繫舌無言痛 인민계설무언통	· 과영월장흥회교過寧越莊陵懷古 적막한 가운데 높이 솟은 홍살문 이곳에 단종이 영원히 잠들었다. 영월에 안타까운 역사 전하고 길게 뻗은 강은 수심을 머금은 듯. 사람들 입을 닫으며 고통 겪었고



해은공 영정

해은시집

鶯鳥失聲不囀追 영조실성부전추
淸浦寒巖花落後 청포한암화락후
悠然歲月度春秋 유연세월도춘추

피조리도 슬퍼하여 울지 못하였다.
청령포 낙화암에 마음 달래려 하니
그윽한 세월은 또 얼마나 흘렀던가.

한시의 이같은 소재에 대해 고서(古書) 더미에서 “해은시집海隱詩集”을 찾아낸 권오길 경주종친회 부회장은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내린 성군관대사성, 북백(北伯, 함경도관찰사), 군기감(軍器監) 등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내린 벼슬을 받지 않고 예전 피아골에서 은거에 들어간 고려의 절신 송고공(松阜公, 휘諱 초輶/ 시인의 15대조)의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과 임란 장의로 경상좌도 70고을 백성들의 생 목숨을 구한 매헌공(梅軒公, 휘諱 사민士敏/ 시인의 10대조)의 학문과 기개를 이은 안동권씨매헌종중(安東權氏梅軒宗中)의 독특한 정신”이 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1976년(丙辰) 9월 20일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중창하고 봉행된 추향 고유문 등 숭모(崇慕) 정신을 담은 한시도 이번에도 여러 편이 발굴됐다.

· 운곡서원 중창기념 추향 고유문에서 吾祖千年白日陽 오조천년백일양 數間構屋此中光 수간구옥차중광 源從羅代依先地 원종라대의선지 賜受安東爲貫鄉 사수안동위관향 遺蹟花山巖峰久 유적화산암용구 奉安雲谷水深長 봉안운곡수심장 傳傳今日重新建 전전금일중신건 尊族衆皆竭力疆 존족중개갈력강	· 운곡서원 중창기념 추향 고유문에서 우리 선조 유적 천 년에 빛나는데 몇 칸 원우를 새로 지었다. 연원은 신라시대부터 조상의 터전이어라 안동으로 사성 받아 관향이 되다. 화산 유적은 바위처럼 솟은 지 오래되었고 운곡서원에 봉안하니 길이 승계할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다시 중건한 것은 족진들 모두 힘 모은 정성이다라.
· 운곡서원감음시雲谷書院感吟詩 靈谷幽深閑寂然 영곡유심격적연 登臨祖宇永安前 등림조우영안전 山回路轉雲生戶 산회로전운생호 日白陰清水落泉 일백음청수락천 林鳥不離明月夜 임조불리명월야 杏花開合細春烟 행화개합세춘연 悠悠緬仰依邊立 유유면앙의변립 默默此間感慕先 묵묵차간감모선	· 운곡서원감음시雲谷書院感吟詩 깊고 그윽한 골짜기 적막한데 선조 묘우 찾아 보심을 올린다. 깊은 산 굽이진 길에 구름 피어나고 청명한 그늘에는 폭포 샘물 떨어지네 숲속 새는 달밤에 날아가지 않고 살구꽃은 봄 안개 속에 활짝 피었다. 높이 우르러 뱉며 서성거리고 있으니 묵묵한 가운데 추모 마음이 앞섭니다.
· 경주 옥연정 慶州 玉淵亭 杜陵村裏世居然 두릉촌리세거연 吾祖後年構此椽 오조수년구차연 先蹟遺傳金碣石 선적유전금각석 孱孫相倚玉淵天 잔손상의옥연천 雲開門路山泉外 운개문로산천외 樹老煙霞日月邊 수로연하일월변 秋菊春蘭追會慕 추국춘란추회모 櫻花華發滿堂筵 계화화발만당연	· 경주 옥연정 慶州 玉淵亭 두릉 마을에서 대대로 살고 우리 선조가 만년에 이 정자를 지었다. 선인들의 유적은 금석에 전해 오고 자손들이 서로 옥연에 모였구나. 구름은 대문 밖 산천 멀리 열렸고 고목은 안개 속 하늘가에 푸르다. 구월과 삼월에 추모회가 열리니 화수의 꽃이 온 집안에 가득하네.

경주 옥연정(玉淵亭, 옥연서원玉淵書院)은 임란의병장이시자 좌승지(左承旨, 종삼품從三品 당상관堂上官)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안양현감(彦陽縣監),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闡)를 받으신 해은공의 10대조 매헌공(梅軒公, 휘諱 사민士敏)을 추모하는 곳이다.
(해은 시인의 생애와 숭모정신崇慕精神, 제세안민濟世安民, 행장行狀은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국가교육위, 산업계 인사 중용해야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고려대 명예교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교육부가 1년간 출범준비를 하게 된다. 모두 21명인 국가교육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1명으로 구성되므로 교육수요자보다는 교육공급자 중심의 위원회가 될 개연성이 크다.

교원단체는 교총과 전교조,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대학 운영자, 교육감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체는 선출직 행정가의 입장을 각각 대변할 것이다. 교육부 차관이 정책조율을 할지라도 교육공급자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소지가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할 5명과 국회가 추천할 9명 중에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사회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가 주도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의 오명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교육적 처방과 사회적 처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을 N포세대로 방치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다.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취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스펙쌓기 마당이 돼서는 안된다. 대학 안팎의 청년들이 N포세대

권이금(權)부영테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표창



한 부영테크원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교량상부 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장

(주)부영테크원(대표이사 권이금)이 '제16회 2021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大賞'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부영테크원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교량상부 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장

에서 MD(More Dream)세대로 변신할 수 있도록 대학이 희망의 등불을 밝힐 사회적 책무가 있다.

앞으로 3년 후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가 6만여명 줄어 입학정원이 1000여명인 대학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0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미래를 만드는 곳인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므로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 미래의 위기와 직결된다. 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라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초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마다 다양한 설립이념을 가진 대학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더욱 허용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정권적, 초당파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바람직한 국가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신개념 거버넌스 구성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취지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과 같은 의미를 굳이 되새기지 않더라도 대학총장과 교수, 직원들은 교육서비스의 핵심수요자인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육서비스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요구에 대해 겸허한 경청과 수렴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는 적령학 학생뿐만 아니라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가 다수 재학하고 있으므로 연령·인종·성별·세대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적 기준과 잣대를 초월해 학생들이 서로 남과 다름을 수용, 각자가 지닌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로 융합해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길을 걸으며 모두가 삶의 일상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대학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패다.

사회를 변혁시키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편향적이 아닌 중립적으로 작동하려면 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계 인사를 중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1년 7월 8일 fn광장

영랑호에서 노닐다



권혁진 박사
추일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화암사 옆 성인대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장엄하였다. 그 뒤 백두대간은 늠름하였다.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푸른 바다 아래 두 호수가 보인다. 영랑호와 청초호가 속초의 눈처럼 보였다.

영랑호는 큰 못에 갈무리된 구슬[珠藏大澤] 같고, 청초호는 화장대에 펼쳐진 거울[鏡開畫臺] 같다고 평한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성인대에서 두 호수를 보고

서 평한 것이라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영랑호를 이렇게 설명한다. “주위가 30여 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왔다. 옛 정자 터가 있으니 이곳이 영랑 등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연려실기술’도 비슷하다. “암석이 기묘하고 괴이하다. 호수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반은 호수의 가운데로 들어왔다.” 암석이 기괴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게는 범바위 일대의 거대한 바위를 지칭한다. 멀리 봤을 때는 감흥이 별로였으나 가까이 갈수록 놀라게 된다. 범바위에 올라가면 규모에 놀라고 아찔함에 또 놀란다. 마치 거대한 설치 미술품 같다. 거인의 세계에 온 것 같기도 하다. 범바위가 있는 산기슭은 호수의 중앙을 향해 뻗어 있다. 이곳에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영랑정을 지었으나 거대한 바위 옆이라 겸손하게 보일 정도다.

암석이 기괴하다는 표현의 넓은 의미는 영랑호 일대 여기저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킨다. 설악산에서 흘러오는 시내가 호



범바위

수로 들어오는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수문장처럼 영랑호를 지키고 있다. 화랑도 체험장을 지나가다도 만날 수 있다. 하트처럼 생긴 바위가 기울어져 있기도 하다. 이유원이 영랑호를 구슬을 머금은 큰 호수라고 했는데 바위를 구슬이라고 본 것은 아닐까.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은 영랑호는 더욱 맑고 시원하며, 숲술과 암석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하여 만나절만 돌아다니면 영랑을 만날 것만 같다면서 시를 짓는다.

이세구(李世龜, 1646~1700)도 영랑호에서 시를 짓는다. “늪은 소나무 우거진 모래 언덕 동쪽 / 맑고 깨끗한 물결 바람도 없네 / 맑은 호수 한 굽이 그림 같은데 / 설

악산 봉우리 거울 속에 박혔네” 호숫가에서 서쪽을 바라본 사람은 알리라. 영랑호는 맑은 물이 아름답지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설악산 때문에 더 빼어나다는 것을.

특히 그중에서도 울산바위는 가운데 우뚝하다. 백두대간은 배경으로도 아름답지만 호수에 잠겨 일렁거리는 모습도 또한 승경이다. 이세구는 배경으로의 설악산과 호수에 드리워진 설악산을 함께 포착했던 것이다.

이제는 영랑호를 떠날 시간이다. 이세구는 시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동을 ‘동유록(東遊錄)’에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호수 둘레는 20여 리이고, 물은 맑고 투명하여 밑바닥까지 흰히 보인다. 좌우의 여러 봉우리가 점점이 이어져 빙 둘러 있

고, 설악산의 못 봉우리에 한창 눈이 내려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다. 호수 속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는 선명하여 그림과 같다.

포구는 저 멀리 산기슭에 연접해 있고, 육거울과 은쟁반이 찰랑거리며 은은하게 비친다. 맑고 빼어나고 소쇄함이 인간세계가 아닌 듯하여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상쾌하고 맑게 하니 거의 회포를 가누기가 어렵다. (중략) 나는 흥인우의 ‘모래 위에서 몸을 굴렸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글을 보고는, 그곳이 이 정도인 줄을 모르고 매양 너무 과장했다고 의심했다. 직접 이곳을 밟고서야 비로소 그 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유럽에서 만약 영랑호까지 가보지 않고 곧장 돌아갔더라

면 영동지역의 천 리 길이 거의 헛걸음이 되었을 것이다.

흥인우가 갑자기 말에서 내려 모래 위로 뛰어가 몸을 굴리며 놀자 동행하던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의 눈처럼 흰 모래도 없어졌다. 밑바닥까지 흰히 보이던 호수로 돌아가려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소쇄하여 정신을 상쾌하고 맑게 하던 풍경은 여기저기 들어선 건물로 많이 퇴색되었다. 여전히 것은 백두대간의 봉우리가 빙 둘러 있고, 설악산의 봉우리가 호수에 비치는 것이다. 하나 더 있다.

동해안에 와서 만약 영랑호를 보지 않고 돌아가면 영동지역의 천 리 길이 헛걸음이 될 거라는 사실이다.